

상록탑

100기를 맞이하며

“너 아직도 학보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면 하나같이 꺼내는 말이다. 수습, 정기자, 차장 기사를 지나 부장 기사가 되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학보 활동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간다. 2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이미 학보 활동을 하고 있던 과 동기 언니의 끝없는 유혹에 넘어가 학보 지원서를 써 내려 간 기억이 떠오른다. 이화라는 곳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욕구도 지원에 한몫을 했었다.

면접을 거쳐 수습 기사가 됐지만 학보 활동은 생각했던 것보다 녹록지 않았다. 이전엔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화에서는 꽤나 많은 일이 일어났고, 매주 이들을 다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외부 언론기관에서 취재를 하러 학교에 물려들 때 촬영을 위해 기자들과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진 촬영은 생각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을 요했고, 때로는 학보에 들어오기 전 시절을 그리워하며 과 동기 언니에게 장난스레 불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사진의 특성상 보도 현장의 분위기와 느낌을 압축해 한 컷에 담아내야 하는데, 이



김수연
사진-미디어부 부장

“

내가 느꼈던 것을

당신도 느끼길 바라며

는 부장이 된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만큼 어려운 문제였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사진이 나올까 고민하며 셔터를 눌렀지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사진기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4학기 동안의 활동이 자괴감만 안겨준 것은 아니다. 학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접하기 힘들었을 인물을 만나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나이와 전공이 제각각인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소중한 인

연을 만들 수 있었다. 과 동기가 그리 많지 않던 나에게 학보 동기들은 때로는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기쁨을 함께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주었다. 또 하나의 큰 성과는 이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학내 소식을 담은 언론기관에서 활동하며 매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부터 현재 문제시되는 사안과 해결방안까지 다양한 기사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이를 통해 이화에 대해 보다 깊은 시각을 지닐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온 구성원이 힘을 쏟아 매주 한 부의 신문이라는 결실을 이루어낸다는 점은 학보에서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자부한다.

이번 호까지 4번의 발행을 남겨둔 지금 벌써부터 후련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학보가 없는 삶이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그만큼 학보는 나의 이화 속 2년을 꽉 채운 존재였다. 이화 합격 이후 별다른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던 내게 이대학보는 성취감을 그 이상의 것을 제공했고, 웬만큼 힘든 일이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세를 가지게 해주었다. 앞으로의 이대학보를 이어나갈 후배 기자들을 향한 응원과 독자들에게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학생 칼럼

지금 스트레스 받는 당신에게

“스트레스 받아” 라는 표현은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말 중 하나일 것이다. 할 일이 좀 많고, 신경이 거슬리는 일 전반에 사용한다. 하루에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열 번도 넘게 생기고, 그걸 상대해 내는 일상을 산다. 바쁨을 토로하면서도, 은근히 이를 뽐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뽐내는 말이라고 해도 심신이 피폐해지지 않는다는 건 전혀 아니다). 성실하게 커리어를 쌓아가는 젊은 현대인이라면 당연한 삶이다. 나 역시도 그런 의미들로 사용해왔던 것 같다.

지금은 스위스에서 4개월 차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곳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사뭇 다르다. 어떤 문화적, 교육적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꽤나 수치스럽게 여긴다. 공부나 일, 연애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친구를 보면 초반에는 습관적으로 “Don't get stressed out too much”, 라고 쉽게 얘기하곤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혹은 조금 ‘바쁘지만 할 수 있다.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다’, 라는 식이다.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오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꾸준히 운동하



김지연
환경공학·15

“

저녁이 만든 여유,

삶의 기회로 이어져

는 일상을 사는 것이 성공한, 혹은 성공할 사람의 자질로 여겨진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못 이겨내는 게 오히려 수치랄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하나의 스트레스 같아 보일 정도니까 말이다. 물론 한국이라고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다만 그간 관찰한 바로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이런 삶을 쉽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때부터 이미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9명의 학

부생, 대학원생 친구들과 한 플랫에서 생활을 하는 중이다. 이들의 일상만 관찰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상당한 채식 위주의 식단과, 남치는 무료 운동 시설과 프로 그램이 있다. 시험기간이 아니고서는 저녁 시간 이후에 일에 골몰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함께 요리하고, 수다를 떨고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산다. 다른 의미로 그들은 치열한 삶을 산다. 직장을 구할 때도, 연애 대상을 찾을 때도 이러한 요소들은 큰 장점이자 긍정적인 덕목으로 작용한다. 내가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름 스위스 최대 도시인 취리히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어 더 일반화하기 쉬울 수는 있다. 한국에서 무태고고 바라기에도 분명히 사회 구조적, 경제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도시인 서울에서 공부하며, 더 치열하게 살았는데, 삶의 질은 더 나쁘다는 걸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더 많은 청년층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노출되고, 또 다른 이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겼으면 한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힘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많아지길 바란다.

여론광장

노인은 다른 종족이 아니다

얼마 전 EBS 다큐프라임 ‘황혼의 반란’을 봤다. 노인들이 30년 전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그때처럼 생활하고, 그 변화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었다. 30년 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처음 다큐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 자기 자신을 추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영상을 보는 동안 계속 놀라움을 느꼈다. 일주일 동안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생활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었고, 그것은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나 역시 노인들의 인지능력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노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로 평가하고 있었다. 어린 꼬끼리를 묶은 상태에서 기르면 그 꼬끼리

는 성장이 끝난 이후에도 밧줄을 끊지 못한다. 즉, 심리적 제한을 당하면 누구나 행동적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 굳이 행동이 조금 서툴러지고 느려졌다는 이유로 노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신체는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사실 그분들과 나는 신체적 연령의 편차가 클 뿐이고 나 또한 언젠가 겪을 일인데, 나는 무의식적으로 청년과 노인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노화는 기피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30년 이전으로 돌아가 일주일간 생활하고 모든 기능이 향상된 그분들을 보면서, ‘노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노력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저출생과 더불어 고령사회가 이행될수록 청년을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것도 점차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노인들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노화를 단순히 ‘신체기능,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퇴보하는 것’으로만 정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을 깨부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젊은 성인으로서의 시간보다 노인으로서의 시간이 몇 배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필요하고, 일자리 정책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 그들을 ‘배려해야 할 약자’로만 생각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동등한 존재로서의 대우. 그것이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더 사회에 참여할 있도록 이끄는 방법이다.

사람은 반드시 늙고, 죽는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노화를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외면하기에 인생은 길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노인들의 신체 약화는 치명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기술이 발달한 현재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해주(심리·16)

사설

서대문구, 소통으로 노점상 생존 보장해야

이번 7월 개장을 눈앞에 둔 서대문구청의 ‘신촌 박스퀘어’ 조성사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미관, 위생, 민원 등의 문제로 노점상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서대문구의 입장과 생계권을 보장하라는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서노연)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대문구는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박스퀘어 주변 유입인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서대문구는 노점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신촌 박스퀘어’ 조성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했던 기존의 사업들의 시행착오를 외면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서대문구청이 박스퀘어 사업의 성공 근거로 제시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긍정적 평도 있지만 기존 노점들의 생존권은 보장되지 못했다. 당시 구청에서는 유동 인구가 늘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설렘했지만 그러한 예측은 빗나갔고 결국 노점 정비 후 3분의 1 이상의 노점이 거리를 떠났다. 이에 대한 보상은 애초에 약속된 바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서대문구청의 노점상인의 생존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중요한 것은 노점의 위치를 이전하면 수입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아닌 실질적인 결

과물이다. 서대문구는 노점 이전 사업을 통해 관련 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했던 사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 이대 앞거리 노점상의 대다수가 박스퀘어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도 필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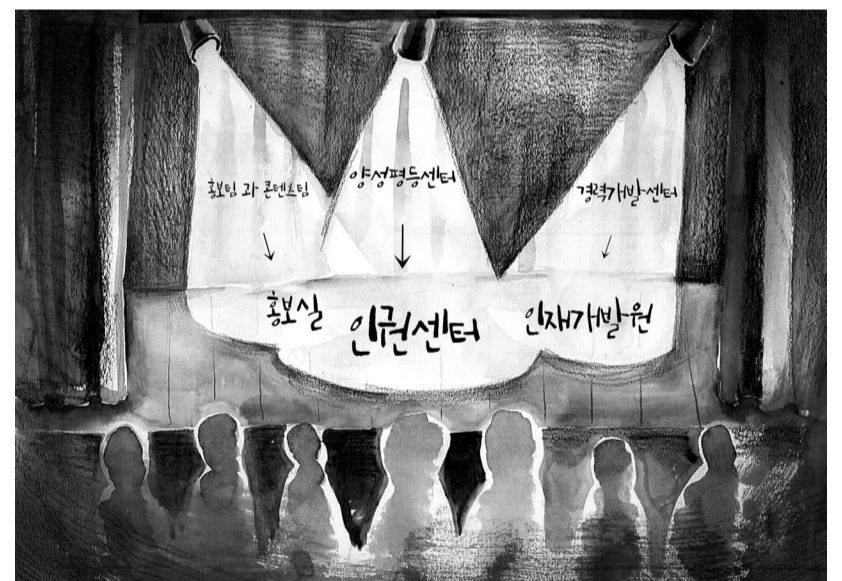
물론 구 차원에서 모든 구민들의 입장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점상에 대한 불만 섞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논란에서 맞물게 되는 두 쟁점을 살펴보면 결국 생존권과 도시 미관이다. 개인의 가치관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생존권은 아름다움에 우선하는 법이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박스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서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박스퀘어 건물의 건축이 시작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취소하는 것 자체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노점상인들이 노점 이전 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대문구와 노점상인들 간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비공식 면담을 포함해 약 30회 노점상들과 협의했다지만, 여전히 노점상인 45명 중 40명이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서대문구의 실질적인 지원이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릴 지라도 민주적이고 진실된 소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만평

우아한 만평기자 wah97@ewhain.net



금주의 책



면역에 관하여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인 저자는 출산을 계기로 아이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직업적인 호기심에서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조사와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그 결과물로 질병과 백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역사, 신화 등과 함께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사회학, 임상·학제적 측면까지 다루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자는 백신 예방접종이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건강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라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공중보건의 개념에서 필요한 것

이라고 말합니다. 질병과 면역에 대한 관점을 넓히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5층 일반자료실 616.079 B543on한]

0411~0510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인소의 법칙	유한려	Itbook : 디앤씨미디어	2015-
2	(정령왕) 엘리네스 : 이환 판타지 장편소설 / 개정판	이환	드림북스 : 삼양출판사	2011-
3	경성탐정사무소 : 박하민 장편소설	박하민	로담	2016-2017
4	해리포터와 불의 잔	Rowling, J. K.	문학수첩	2000
5	달을 사랑한 괴물 : 김지우 장편소설	김지우	파피루스 : 디앤씨미디어	2013